

기독교적 타자윤리를 통한 사회복지실천관계 분석 :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Social Work Practice Relationship : Focusing on the Practice of Jesus Christ

최명민 (Myung-Min Choi)*
이현정 (Hyun-Jung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ractice of social work, which has developed from the West, has formed its orientation and practical guidelines in the context of the Christian world view from the outset. Related to theory of relationship, the key to social work practice, this study intends to redefine how we should view and relate to the other as the disadvantaged from a Christian ethics of the oth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dentifies the circumstances of the others referred to as clients of social work in modern society and examines what perceptions and ethical positions have been made about them in modern philosophy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Particularly referring to Levinas's "ethics of the other," recognized as its ethical base on Christianity, this study explores social work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based on Levinas's ethics. Furthermore, as an ultimate alternative, this study develops practical guidelines for social work practice by analyzing ideas and practice of Jesus Christ in bible from the perspectives of ethics of the other. This study can provide concrete action guidelines for the practice of social work in accordance with the christian spirit and expand the scope of discussion about relationships in social work based on the teachings of Jesus.

Key Words : ethics of the other, social work practice relationship, Levinas, Jesus Christ, the disadvantaged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Baekseok University),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 mmchoi@bu.ac.kr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조교수(Baekseok University),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 hjlee2003@bu.ac.kr

2018년 07월 25일 접수, 08월 30일 최종수정, 09월 08일 게재확정

1. 서론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는 원조과정의 기반이자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관계’는 사회사업실천이 발전되기 시작한 초기부터 실천개입의 ‘영혼’이자 ‘심장’이며 주요 결정요인으로 간주되어 왔다(Coady, 1993). 이러한 측면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이 관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활용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전문직으로 규정되고 있다(최명민, 2011). 그만큼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관계가 차지하는 의미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1:1 관계 뿐 아니라 인간과 그 인간들이 맺는 사회적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 따라서 가족, 집단,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은 사회적 공동체를 실천의 대상으로 간주해 왔다. 이처럼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서로 다른 인간, 즉 일자(一者)와 타자(他者)의 만남과 그 관계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교육 커리큘럼 중 가장 기초적인 과목 중 하나인 <사회복지실천론>에서도 ‘관계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형성하는 전문적 관계의 기본 요소 중 하나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사회복지실천의 관계론에 따르면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에는 그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하지만 자칫하면 과도한 개입으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항상 도움 받는 사람을 주체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며 그들이 가능한 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돕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양옥경 외, 2010: 140-141).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윤리에서도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사회복지사의 온정주의 간의 긴장, 클라이언트 알 권리와 자기결정, 고진된 동의, 비밀보장 등에 대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김기덕 외,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사-클라이언트 관계의 이상적 형태에 대한 합의가 아직까지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한 교과서 상에서도 한 쪽에서는 관계형성의 요소로 ‘전문적 권위’를 언급하고 있지만 동시에 또 한 쪽에서는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일정한 거리를 강조하는 내용과, 평등한 권력적 관계에서 상호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철학적 기반에 설 명 없이 병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최명민, 2011).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클라이언트라는 타자(他者) 또는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던 데에서도 찾을 수 있겠다.

여기서 타자란 나(一者)와 다른 존재를 의미하는데 사회복지현장에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빈곤계층,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 소수 인종, 이주 노동자와 난민, 도시 철거민 등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타자라고 할 수 있겠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적 주류나 사회복지사가 속한 집단과는 다른 문화, 계층, 인종, 종교 등의 차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복지사에게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나(우리)’라기보다는 ‘나(우리)와는 다른 낯선 부류의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화와 전 지구적 이동 현상에 의해 그동안 우리가 접하지 못 했던 이질적 존재와의 조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상이한 태도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타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중세시대부터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대서양철학에서도 타자에 대한 관심은 타자윤리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는데 그 중심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반영한 관점이 존재한다. 단, 이러한 타자윤리학에서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에 대한 관심은 충분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에 실천적 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학문으로서 타자윤리학 뿐 아니라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했던 예수의 말과 행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가장 모범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서구에서부터 발달해온 사회복지실천은 초기부터 기독교 세계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그 지향과 실천적 지침을 형성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 예수의 생애와 기독교 사상을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타자윤리 차원으로 접근해 본 시도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우선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로 지칭되는 우리 시대의 타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대철학에서 이러한 타자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윤리적 입장이 주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독교적 타자윤리학자로 지칭되는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한 타자윤리의 함의와 한계를 고찰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

의 대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실천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 구체적 실천지침을 제시할 뿐 아니라 타자윤리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관계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한층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현대사회에서 클라이언트의 위상 : 타자로서 클라이언트

역사적으로 타자, 또는 이방인은 환대와 수용의 대상이기보다 경계와 배제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인류애와 인권이 강조되고 복지제도가 발달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완화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속성을 관통하고 있는 학자들은 오히려 사회적 타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바우만(Bauman)은 근대성이 갖고 있는 성질을 고체적(solid) 특성과 유동적(liquid) 특성의 혼합이라고 보았는데 후기근대로 갈수록 자본의 힘에 의한 세계화와 자본의 초국가적 이동,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고체적 속성이 약화되고 유동적 특성이 증가하는 ‘액체 근대(liquid modernity)’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하면 집단적 기획과 실행, 예측 가능성, 사회적 연대와 결속과 같이 견고했던 사회적 속성들이 용해되면서 무질서와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이 증가하고 개인화와 더불어 새로운 위험들이 증가하는 시대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일수 역, 2005). Beck은 이런 현대사회의 속성을 ‘위험사회’라는 개념으로 지칭하기도 하였다(홍성태 역, 2014).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 따라 사회구조가 생산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견고한 결속이 점차 약화되고 노동을 중심으로 통제되고 운영되던 사회는 소비중심 사회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생산자나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보다 소비자로서 선택의 자유와 능력이 강조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고체근대사회에서 중시되던 집단의 규범이나 규제가 희미해지고 개인화(individualization) 현상이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자유로운 개인은 자신을 지지해 주고 그 결과를 함께 감당해 주던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모든 선택과 판단의 결과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급속히

유동화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혼란과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오히려 매뉴얼과 절차가 강조되며 감시와 감사의 기능이 강화된다. 또한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 윤리의 약화, 수단과 절차의 강조에 따른 성찰성의 약화로 인하여 윤리적 무관심이 증가하고 규범성이 쇠퇴한다. 따라서 공공성, 사회정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같은 무거운 담론보다 가벼운 가십이나 유명인의 사생활과 같은 이슈들에 화제의 중심이 되곤 한다(이일수 역, 2005; 김기덕·최명민, 2014).

이러한 현대사회의 변화는 사회적 주류에서 밀려난 취약계층이나 이방인에 해당되는 클라이언트가 설 자리를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산중심의 사회가 소비중심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구매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 사회의 타자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과거 생산 중심의 노동력이 중요한 사회에서는 이들도 적절한 교육이나 훈련의 기회를 통해 노동력을 가진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현대 소비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부담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홍지수 역, 2013: 127).

그러므로 이들이 현대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연대 책임과 사회복지적 접근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미 어떤 공동체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개별화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안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시민들은 사회복지지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결과에 대한 공동의 윤리보다는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이들을 도와야 하는 사회복지기관들조차도 성과와 효율성에 내몰리면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 이러한 무관심이 관심으로 바뀌는 경우는 이들이 범죄와 같은 사회문제나 사회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때이다. 따라서 위험사회에서는 사회복지조차도 수용적 태도를 보이기보다 사회 방위적 차원에서 위험발생에 대비한 통제와 관리 위주의 방어적 실천에 경도되기 쉽다(Webb, 2006; 최명민 외, 2016). 최근 우리나라에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당사자 동의와 상관없이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강제적 사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처럼 자신과 이질적인 존재를 환대하고 수용하며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이다. 결국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로 대표되는 사회적 타자들은 더욱 구분지어지고 배제되며 사회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급속도의 산업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사회운

영의 원리로서 경쟁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낯설지 않다. 최근 한국사회의 높은 자살률이나 난민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 등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시대적 특성 때문에 타자윤리의 중요성은 더욱 크고 무거워지고 있다. 이제 어떤 경제적 논리나 합리적인 논거로 이들의 존재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댈 곳은 그런 논리나 합리가 아니라, 영성에 기초한 도리와 윤리이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타자윤리가 어떠한 기반과 경로를 통해 형성되어 왔으며 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III. 타자윤리학과 기독교적 타자윤리학

1. 타자윤리학(the ethics of the other)

근대철학의 인식론은 표상(表象 vorstellen, representation)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표상이란 어떤 차이들이 ‘동일한 하나’의 지평에 귀속된 것으로서 이 표상에 따라 보편 범주나 원칙이 하나의 기준으로 설정된다(서동욱, 2011). 따라서 표상활동에 따라 원래는 단순히 ‘다름’에 불과했던 ‘차이’에 좋고 나쁨과 의 의미가 부과되고 그 우열의 ‘정도(程度)’가 정해지게 된다. 그 결과 동일성은 정상성(normality)으로 규정되는 반면 동일성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것들은 ‘비정상’으로 인식되어 동화 또는 배제의 대상이 되곤 한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근대 철학은 다름과 차이 가운데 특정한 것을 ‘중심’, ‘보편’, ‘다수’, ‘바람직한 것’으로 설정하여 절대시하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독자적 존재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나, 우리, 남성, 백인, 자국민, 이성, 주체, 서양 등은 보편과 중심에 서게 되며 너, 너희, 여성, 유색인, 이방인, 감성, 대상, 동양 등은 수동적, 의존적이거나 중심에서 파생된 소수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다(김기덕, 2016).

이와 같이 자율적 인간의 합리적 이성을 기반으로 전근대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려 했던 모더니즘은 이러한 해방 추구가 다시 억압으로 이어지는 근대의 역설에 직면하게 되었다. 타자윤리(학)(the ethics of the other)는 바로 이러한 근대 인식론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태동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존

인식론이 갖고 있는 고립된 개인과 ‘나’ 중심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실천적 억압성과 비윤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김유동 역, 2011).

그런 측면에서 타자윤리는 다름과 차이의 철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동일성(identity)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근대철학이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와 다름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거나 배제해왔다는 반성과 비판의 산물이며, 다양성(diversity)을 사고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대안적 사고를 모색해 보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자윤리학에서의 주요 관심은 ‘타자와 자기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 ‘타자와 자기는 서로 간에 어떠한 위상을 갖는가?’, 그리고 그에 따라 ‘어떠한 태도와 실천이 필요한가?’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타자에 대한 접근을 인식론 차원에서 존재론적 차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나와 분명하게 다른 저 이질적인 존재가 여기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타자의 존재이유와 그 정당성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러한 이질적인 존재를 나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고 결국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존재에 답해야 하는 철학의 차원의 접근이라고 하겠다(김기덕, 2016).

이러한 타자윤리를 대표하는 학자로는 유대주의 윤리학자인 에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를 들 수 있다. 그의 철학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우선 그는 타자의 존재는 우리 인식에 의해 충분히 파악될 수 없는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이질적인 존재의 이유와 정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형제로서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양명수 역, 2000; 강영안, 2005).

레비나스 외에도 리콤폴르(Ricouer), 왈쩌(Walzer), 데리다(Derrida), 호네트(Honneth) 등과 같은 현대 철학자들이 타자윤리의 논의를 다양하게 전개해 오고 있다. 리콤폴르는 너와 나 사이의 호혜성 또는 상호성을 강조하며 타자를 친구로 규정하는 데에 비해(김응권 역, 2006), 자유주의 정치철학자인 왈쩌는 타자를 이교도로 간주하며 관용을 강조한다(송재우 역, 2005). 해체주의 탈근대론자인 데리다는 서로 취약한 존재로서의 자신과 타자의 관계 속에서 타자를 손님으로서 환대할 것을(남수인 역, 2004), 그리고 비판이론가인 호네트는 타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문성훈 역, 2011). 각 학자 별 타자윤리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¹⁾

1) 이 표는 김기덕(2016)에 의해 작성된 표를 저자 동의 하에 수정 보완하여 제시한 것임.

Table 1 Comparisons of key concepts and emphasis by ethics of the other scholars

Scholars	E. Levinas (1906-1995)	P. Ricouer (1913-2005)	M. Walzer (1930-)	J. Derrida (1930-2004)	A. Honneth (1949-)
Images of the other	family member, sibling	friend	pagan	guest	member
Meanings of the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reature that makes me a transcendental self with the face of pain • An infinite being out of control or poss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ing necessary for my good life • A broad-breaking vehicle that makes oneself's abilities re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person who wants coexistence with totally different identity, lifestyle and living sp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ing in me, forming my identity, seeking coexis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ings fighting for equal treatment • A person seeking approval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Emphasis of ethics of the other	responsibility	reciprocity	tolerance	hospitality	recognition
The practice toward the other / Characteris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sponsibility is derived from the other, and responsibility is the sacrifice of oneself • Highlight one's active acceptance of passive the o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garding self and the other as an equal being capable of judging behavior • Includes consideration for the other starting with respect for oneself • The other's help and institutional life are needed to realize one's abil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ider the other as the subject of tolerance on the premise of self-contradiction between self and the other • Tolerance increases internal equality among individuals • The other is an object of coexistence, but not recognition, but something outside of onese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lerance presupposes a desire for control and ownership, responsibility assumes a sense of guilt and sacrifice, while hospitality presupposes equality • The tension of unconditional and conditional hospita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other is an active being that shapes identity and self-consciousness from outside • Oneself grows up, resisting the intervention and evaluation from the other, creating one's own identity and self-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Limit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ilateral responsibilities can be dispensations by subjec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placement and supplementation are needed when the proposed inability of mutual understanding is abs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olerance is a necessary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coexist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hospitality is insufficient, conflict resolution is required 	

여기에서는 이들 중에서도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레비나스가 타자윤리의 대표적인 학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타자 윤리학은 기독교적 타자윤리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적 사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 주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2. 기독교적 타자윤리 : 레비나스의 타자윤리학

레비나스 이전에 서구 철학에서는 자기를 중심으로 내가 마주하는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의해 자기 이외의 다른 것들을 대상화해 왔다. 따라서 ‘타자’는 이방인이나 주변인과 같이 배제나 배척의 대상으로 취급되곤 했다. 그러나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자는 자기중심적 판단과 구별을 뛰어넘는 무한(無限)한 존재이며 주체와 타자의 올바른 관계는 이러한 ‘타자성’을 보존하는 관계이다. 그가 여기서 주장하는 주체에 의한 타자의 인정은 타자를 이해하거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는 정도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타자란 나와 단지 ‘다른 존재’라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는 타자의 존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미지의 땅인 가나안을 지향하는 것과 같은 목적론적 존재이지, 자신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조종할 수 있는 수단적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다(김연숙, 2001: 191-192; Harmonie, 2018). 따라서 타자의 다름에 대한 인식과 인정 없이 외부 세계를 한낱 사유의 대상으로 보고 자아의 범주로 가져와 자신의 틀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몰두하는 주체는 동일성의 폭력을 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임순미, 2001: 47).

레비나스는 이러한 타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자기중심적 ‘시선’ 개념과 상반된 타자의 ‘얼굴visage’ 개념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얼굴은 눈, 코, 입이 위치한 신체 부위라기보다는 주체가 자기를 나타내는 통로이자 타자와 자기를 관계 짓는 상징이다. 따라서 대면(對面)은 주체 간의 만남이며 타자의 얼굴에 드러난 호소는 신(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나 절대적 명령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 우리가 신의 계시를 해석하려 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듯이 타자의 입장도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다. 이렇듯 스스로 호소하고 표현하는 얼굴과의 만남은 주체의 시선으로 바라본 사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준다. 레비나스는 특히 ‘고통 받는 타자’의 얼굴을 강조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신’은 타자의 고통스러운 얼굴 속에서 타자의 생명과 복지, 안녕을 위해 우리의 무한한 책임을 요

청한다. 여기서 타자란 성서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 또는 이방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일컫는데 이처럼 고통 받는 타자가 호소할 때 우리는 마치 신의 계시처럼 받아들이고 해석할 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결국 타자의 얼굴은 타자가 내게 보이는 대상으로서 수단화할 수 대상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도덕적 명령이자 윤리성을 요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 준다(구미정, 2017; 시시한 삶의 자리의 영광, 2018; Harmonie, 2018).

레비나스가 이처럼 타자성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유럽의 변방인 리투아니아 출신의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배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지속적인 차별과 수용소 생활을 경험 하였으며 2차 세계대전 중에는 나찌에 의해 가족들이 몰살당하였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비극이 주체 중심의 근대 서양 철학의 전통과 자아 중심으로 윤리적 세계를 구성하는 폐쇄적인 전체성의 사고체계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고체계는 타자의 타자성을 제거시키고 주체 중심의 동일화 가능성만 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김연숙, 2001: 43-50). 이러한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보면, 노예제도, 유대인 학살, 제국주의적 침략과 같은 역사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보다는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고 타인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아 중심으로 형성된 전체성의 영역으로 흡수하려는 서양 철학의 ‘주체’의 견고함, ‘전체주의’, ‘동일성’의 폭력 등이 초래한 결과이다(이경화, 2007).

그러므로 레비나스는 자기와 타자와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인 윤리학을 제 1 철학이라고 보았고 인간은 다른 생물과 달리 형이상학적이며 윤리적인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레비나스는 윤리를 ‘타자’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의 문제이지 타자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한 사변적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타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주체성의 조건임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타자의 타자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그리고 헐벗고 고통 받는 모습으로, 또는 정치·경제·사회적 불의에 의해 짓밟힌 자의 모습으로 호소하는 타자를 받아들이고 대신 짐을 지며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에서 나의 주체성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강영안, 2005: 32-33).

3. 기독교적 타자윤리가 사회복지에 주는 함의

이러한 레비나스의 사상은 신(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타자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 기독교적 타자윤리로 간주된다. 인간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서 구현되는 모습이 타자윤리의 실천과 닮아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박원빈, 2010). 따라서 레비나스는 타자를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할 ‘가족’이나 ‘형제’와 같은 존재로 간주한다. 이는 다른 타자윤리학자들이 타자를 ‘친구’, ‘이교도’, ‘손님’, ‘사회구성원’으로 간주하는 입장과 차별화된 것으로서 보다 친밀성과 책임성이 강조된 개념이라고 하겠다.

바우만(홍지수 역, 2013)은 이와 같이 타인을 형제로서 받아들이는 레비나스의 견해가 현대 사회복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카인이 화를 내며 의문형으로 대답했다. “내 동생이 내 책임입니까, 내가 알게 됩니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윤리철학자 에마누엘 레비나스는 이 화난 카인의 의문형 대답으로부터 모든 부도덕함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당연히 내 형제는 내 책임이다. 내 형제가 내 책임이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묻지 않는 한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나는 내 형제를 책임져야 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내 형제의 안녕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런 내 형제의 의존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다. 내가 그 의존성에 의문을 갖는 순간, 그리고 카인이 그랬듯이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유를 대라고 요구하는 순간, 나는 내 책임을 저버리게 되고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의존성과 윤리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홍지수 역, 2013: 120-121).

사회복지의 임무는 이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삶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도움과 타인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하는 실업자, 장애인, 병약자와 같은 이들을 돕고 이들이 변화되도록 하는 일을 수행한다. 그러나 제한적인 현실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례를 목격하게 되는 일은 흔치 않으며 사회복지조차도 점차 성과와 편익의 논리에 따라 운영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대사회의 실상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제 이들을 변화시켜서 노동에 투입함으로써 경제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복지의 경제적 근거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바우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타자에 대한 책임의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독립적이지 못 하고 구매와 판매라는 소비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은 사회에 발 디딜 곳이 없으며 ‘의존’은 경멸적인 개념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레비나스는 카인과 아벨의 일화를 통해 타인의 욕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책임은 도덕성의 초석이며 그 책임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도덕적 인간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복지와 경제의 순환적 논리로 사회복지의 정당성을

합리와 윤리 모두에서 찾을 수 있었던 지난 세기는 지나가고 이제 논리가 사라진 자리에 윤리적 정당성만이 남은 셈이 되었다(홍지수 역, 2013).

이처럼 레비나스의 기독교적 타자윤리와 그에 대한 바우만의 해석은 현대 사회복지가 어떠한 논리적 근거에서 있으며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레비나스 중심의 기독교적 타자윤리가 사회복지에 주는 관계론 측면의 구체적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첫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근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부류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형제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존재 이유에 대해 어떤 합리적 타당성이나 사회적 효용을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무조건 클라이언트를 돌보아야 할 윤리적 책임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고통과 어려움에 민감해야 하며 이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가 나의 이성으로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무한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클라이언트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

넷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자신의 단편적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 함부로 구분 짓거나 분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대상자 분류나 문제 분류에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복지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로나 형태로도 나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는 사회복지실천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한계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타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책임진다는 것이 강조되면서 타자를 주체적인 존재로 보기보다 받아들여지는 존재,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존재로 상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회복지실천은 일방적인 시혜로 흐를 위험이 있다. 또한 레비나스의 타자윤리는 철학적 차원의 논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현장의 구체적 대상과 장면에 대해 보다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해 주지는 못 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한계점들을 극복해 보기 위하여 성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의 타자윤리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IV. 타자윤리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과 사회복지적 함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태복음 25:40)

예수는 이처럼 그 사회의 소위 가장 소외된 이들을 자신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어떤 타자윤리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윤리적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그리고 예수는 실제로도 공생에 동안 항상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선 사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단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고통 받는 자에 대한 깊은 공감과 동일시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고통 받는 자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다고 할 수 있다. 예수의 인격에는 인성과 신성이 모두 있으며 따라서 신성의 측면에서는 전능하고 전지하고 편재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슬픔과 절고를 아시고 인간의 곤궁과 비참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볼릴 수 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애 전체가 고난의 삶이었고 특히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의와 성결과 진리에 대한 열정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통렬한 고통과 슬픔, 고독감과 중압감을 경험하셨다.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련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인간들의 진정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다(박희석 역, 2001: 168,172)

이처럼 예수는 타자를 돌보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타자윤리학의 모범적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고통 받는 가난한 자와 약자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열린 태도로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고 고민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위해 극한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당시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이자 이질적인 존재였던 타자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사회복지실천적 차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그 구체적 행적을 주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누가복음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변종길·신득일, 2008).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 예수가 만나고 언급하고 상대했던 당시 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다음과 같이 사마리아인, 세리, 여인, 그리고 장애인과 병자의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에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의 행적은 크게 세 가지 일화로 구성된다. 첫째 일화는 예수께서 예수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사자들을 보내어 사마리아의 한 마을을 지나가고자 하나 사마리아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는지 묻자 예수는 이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신다(누가복음 9장 51~56절). 둘째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이다. 어떤 율법인이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고 묻자 예수는 강도를 만나 죽음의 지경에 이른 사람 곁을 지난 세 사람의 예를 든다. 그 중 첫째와 둘째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고 마지막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한 사마리아인이다. 그리고 예수는 이들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되물으셨다(누가복음 10: 30-37).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나가시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나병환자 열 명을 고치셨는데 그 중 깨끗함을 받은 자 중 한 명이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이에 예수는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가고 이 이방인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느냐고 하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11: 11-19).

이러한 일화는 먼저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를 알면 좀 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당시 사마리아는 인종적으로나 사상적으로 유대인과 다를 뿐 아니라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서로 반목하는 관계에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간에서는 서로 교제나 결혼을 금할 정도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었다(신인철, 2017).

따라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한 마디로 유대인에게는 이질적일 뿐 아니라 적대적인 상태의 타자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에 대해 갖고 있는 적대감이나 편견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상당히 개방적이고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예수에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 유대인들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인들을 의인의 예로 들으로써 어떤 집단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타파 하려는 의도를 보이셨다. 이것은 두 번째 예에서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대비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를 들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굳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답을 피하고 “자비를 베푸는 자”라고 표현하는 율법교사의 태도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이방인에 대해 형제로서의 책임을 강조한 레비나스나 이교도에 대한 관용(tolerance)을 주장한 왈쩌의 타자윤리와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대함에 있어서 어떤 출신이나 소속 집단으로 구분 지어 판단하거나 기존의 선입견을 무조건 따르는 태도를 탈피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성을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는 행적을 보이셨다.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기존의 사회질서에 의해 배제되고 낙인 찍혀온 사람들을 기존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는 대신, 개별화된 고유의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과 특정 대상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견지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특히 이러한 예수의 사역은 이질적 문화와 존재를 접하는 다문화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겠다.

2. 세리

예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수차례 먹고 마시며 어울렸다(누가복음 5: 27-32; 누가복음 15: 1-2). 특히 삭개오라는 세리장의 일화에서 예수는 대중 앞에서 마치 일부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세리장인 삭개오의 집에 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셨다(누가복음 10: 1-10). 여기서 세리는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 취급을 당했던 그 시대의 ‘왕따’로서 대중으로부터 질시와 낙인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는 세리 삭개오와 같은 죄인을 꾸짖거나 그들의 삶의 모순을 직접 지적 함으로써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우선 겸손한 태도로 그들과 어울리며 친구가 되어 주셨다. 이러한 방식의 관계 맺기는 당시 시대 상황의 관습을 뛰어 넘는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으며 그만큼 따돌림과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들에게는 강력한 위로를 선사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이는 타자를 친구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호혜

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주장한 리콰르(김응권 역, 2006)의 타자윤리적 주장과 맞닿아 있다. 결국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에 의해 수용되는 경험, 친구로서 존중받은 경험을 통해 회개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비행청소년이나 가정폭력 가해자와 같이 소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나 여러 이유로 사회적으로 멸시와 소외의 대상이 되는 이들을 대하게 되는 일이 자주 있다. 이 때 삭개오에 대한 예수의 사역은 사회복지사가 어떤 이유로든 낙인과 편견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로 대해서는 안되며 ‘비심판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일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열고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의 사역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경멸받고 배척받는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사에게는 마지막까지 존중하고 수용해야 할 대상이며 스스로 그와 함께 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한편, 삭개오의 일화를 보면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세리를 경멸하고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성을 느끼며 스스로 안도하는 심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이 의인보다는 죄인을 위해 온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며 이들의 친구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계시다(누가복음 7: 34). 이는 세리와 같은 죄인에게 주는 위로와 관용의 메시지였지만 세리를 죄인취급하며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득권층을 의식한 메시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분 짓기나 편 가르기에 도전하면서 더 우월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모두가 사실은 다 같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과 이러한 우열의 논리가 결코 자신이 전하고자 했던 진리가 아님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러한 교훈은 사회복지실천을 통해 우선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대상은 소외계층에 대한 낙인과 편견을 가져오는 기존관념이자 이런 관념을 갖고 문제의식조차 없이 자만심과 허위의식에 젖어 살고 있는 기득권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3. 여인들

예수는 공생애 동안 많은 여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입지를 세

워주셨다. 독자를 잃고 슬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하시고 그 독자를 살려주심으로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누가복음 7: 11-17),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의 발을 눈물과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성을 비난하자 예수는 오히려 그녀의 믿음을 옹호하며 죄를 사해주셨으며(누가복음 7: 36-50), 심지어 악귀에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등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 제자들과 함께 자신을 따르도록 허용하셨다(누가복음 8: 2-3).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자(minority)라는 점에서, 기원 전 중동지방에서 여성이 어떠한 지위를 갖고 있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당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억압과 배제의 대상이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예수께서 여성을 대했던 방식은 사회적 소수자로서 타자에 대해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수는 결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셨고 향유를 부은 여성의 예에서와 같이 오히려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남성 제자들 앞에서 칭찬하시며 귀하게 여기셨다. 이렇듯 예수는 당시 권력자인 바리새인이나 소위 의인들보다 천대받고 홀대받던 사마리아인과 세리에게 관심을 보이며 그들 편에 섰듯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하층계 취급당하며 고통 받던 여성들에게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진심과 호소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또한 여인들을 당시의 고정적인 관념으로 바라보던 다른 남성들의 저항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비판과 억압적 태도로부터 방어해 주셨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표현의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정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예수의 태도는 특히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자주 접하게 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하겠다. 호네트를 비롯한 최근 타자윤리학자들이 강조하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의 진정한 실천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복지사가 단지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옹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곧 성서적인 것임을 의미한다.

4. 장애인과 병자

성경에 기록된 38년 된 중풍병자, 맹인 바디매오, 지붕 타고 내려온 장애인, 손 마른 장애인, 18년간 구부리고 있던 여인, 혈루증 여인 등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은 다른 소외 계층들과 더불어 예수가 짧은 공생애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접했던 사람들이며 4복음서에는 이들의 치유 사역이 자주 등장한다. 그만큼 이들의 문제는 예수의 사역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이들에 대해 부정적 관점과 긍정적 관점이 공존하기는 하지만 그 시대의 장애와 병자에 대한 관점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와 질병은 신앙적으로 죄의 결과와 형벌로 인식되었으며(요한복음 9: 34), 사회·문화적으로는 정결에 관련된 율법 규제인 정결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다(정중규, 2012). 그러므로 장애인과 병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태어난 부정한 자요, 율법에 따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당하고 차별과 멸시를 받는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수의 사역은 그 시대의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대한 매우 강력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저렇게 된 것이 누구의 죄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는 그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선포함으로써(요한복음 9: 1-3) 장애가 죄라는 사회적 편견에 도전하셨고,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던 한센 병자를 고치실 때는 직접 손을 대고 치유하며(누가복음 5: 12-16) 그들과의 접촉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던 그 시대의 사회적 통념에 몸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의 태도와 행동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나 질병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만나는 접점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특별한 함의를 갖는다. 우선 예수는 장애나 질병의 치유 행위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을 때 치유행위를 펼쳤으며(누가복음 5: 17; 누가복음 5: 12; 누가복음 17: 13) 치유 행위가 일어난 후에는 많은 경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고 격려해 주셨다(누가복음 8: 48; 누가복음 17: 19). 이는 치유 행위 과정에 있어 예수는 장애인을 단순히 고쳐야 하는 피동적 수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장애인의 욕구와 인격을 존중하였으며 당사자의 의지와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당사자가 치유에 있어 중대한 역할을 한 것임을 인지하게 하였다는 의미가 있다(정중규, 2012). 예수의 이러한 접근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자기결정권과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중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은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들이 지닌 강점과 역량을 인정하고 이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는 치유 행위 과정에서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예수는 한센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 치유되었음을 인정받도록 하셨다(누가복음 17: 14). 이러한 행위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시 소속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그 시대에 있어 모세의 율법대로 한센병이 치료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한 것이었다(정중규, 2012). 이처럼 예수는 장애와 질병의 치유를 넘어 사회적으로 배제를 경험해 온 이들에게 타자에 의해 수용되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치유의 중요한 목적임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에 통합되어 인간 존엄성을 찾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사마리아인, 세리, 여인들, 그리고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 받는 자에 대한 예수의 사역을 통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배척당하던 그 시대의 타자에 대해 예수께서 보여주고 전하고자 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예수는 학술적으로 타자윤리를 논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 시대에 자신의 구체적 행적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타자윤리의 실천 사례들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예수의 사역은 레비나스의 형제론 뿐 아니라 현대 타자윤리의 이상적 유형으로 거론되어 온 이교도에 대한 관용(Walzer), 손님에 대한 환대(Derrida), 구성원으로서의 인정(Honneth), 친구로서의 호혜와 우정(Rocour)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구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타자 윤리적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작은 자, 즉 타자를 자기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두셨다는 점에서 기존 타자윤리학자들보다 더 개방적이고 근본적인 입장을 취하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예수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의 친구를 자처하셨으며 고통 받는 자의 짐을 흔쾌히 나누어 질 뿐 아니라 그들을 먼저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는 타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귀한 존재로서 존경과 섬김의 대상인 동시에 자신과 상호적이고 동등한 관계에 있어 공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특히 예수는 인간 사이에서 우열을 구분 지으며 우월감에 젖어 있는 행태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맺음에 있어 스스로를 클라이언트보다 우월한 지위에 두고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돕는다는 시혜적 태도가 아니라 상호적이고 평등하며 협력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회복지사에게는 무엇보다도 겸손한 자세와 열린 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외적인 요소로 그 존재를 규정하지 않고 권력의 대소(大小)에 상관없이 사람의 중심과 태도를 보며 가장 작고 낮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훌륭한 범례를 제시해 주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뜻을 따르려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인식함에 있어서 그의 출신, 소속, 사회적 지위와 배경에 의해 차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람 자체와 그의 고유한 삶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편견이나 선입견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자신이 비차별적 태도를 취하며 타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클라이언트를 억압하는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인지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편견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클라이언트도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이지만 이와 동시에 편향된 인식을 당연시하며 타자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들 역시 변화를 위한 실천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에게는 자애로웠지만 권력자의 오만과 위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의 모습은 이러한 당위를 뒷받침해 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통 받는 소외계층을 위한 ‘옹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이방인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인에 대해서도 세상 기준과 달리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셨던 예수의 행

적은 여러 형태의 일탈자를 만나게 되는 사회복지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예수의 가르침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취하거나 어떤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도 우리의 책임에서 제외되어도 좋을 존재란 없으며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이들과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이는 사회복지실천관계론에서 강조되는 ‘비심판적 태도’와 ‘수용’의 원칙과 맞닿아 있는 교훈이기도 하다.

다섯째,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타자를 대했던 방식은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강점관점과 임파워먼트의 구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수는 사회적 편견과 억압적 태도로부터 방어해 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이 간과해 온 숨겨진 강점을 찾아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모습을 보이셨다. 따라서 예수를 본받고자 하는 사회복지사라면 클라이언트 역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삶의 주체임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겠다. 특히 사회복지적 개입에 의해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개입의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그 공을 사회복지사 자신에게 돌리기보다 그 동기나 계기를 클라이언트의 노력과 의지에서 찾고 이를 강조함으로써 임파워링(empowering)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와 같이 앞에서 살펴본 기독교적 타자윤리에 의한 사회복지실천관계의 지침들이 다소 추상적인 인식론 차원이라면, 예수의 사역에 기초한 사회복지실천관계의 지침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또한 이러한 지침들은 기존 사회복지실천 관계와 부합하면서도 더 정교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소외계층에 대한 예수의 실천은 기독교적 타자윤리 뿐 아니라 현대 타자윤리의 실천적 완성이자 사회복지전문직에도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전범(典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V. 결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옛 사람을 버리고 구원의 새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구체적으로 타자를 상대로 실천이 될 때에야 입증될 수 있다(이문선, 2006). 그만큼 타자와의 관계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바울 역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우리의 능력이 영적인 성숙의 척도라고 강조하였다(고성삼 역, 2010). 사회복지사는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을 돕는 전문직이며 그 주요 관계의 대상은 우리 사회에서 배제되고 억압받고 기회를 얻지 못한 타자들로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윤리적 태도를 요구한다고 하겠다.

이에 지금까지 현대사회에서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타자로서 사회복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타자윤리가 가질 수 있는 함의를 기독교적 타자윤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토대로 사마리아인, 세리, 여인, 그리고 장애인으로 대표되는 소외계층과의 관계에서 타자윤리의 모범적 전형을 보여주신 예수의 행적을 살펴보고 그러한 일화들이 사회복지사에게 줄 수 있는 실천적 의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독교적 타자윤리가 갖는 중요성을 확인하고 예수의 삶이 현대 타자윤리가 제시하는 이상적 타자관계를 포괄할 뿐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을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실천적 지침들이 그동안 사회복지실천 관계론에서 논의되어온 기존 내용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실천관계론의 철학적 기반으로 타자윤리를 예수의 사역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논리적 정당성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관계의 기본 원칙을 보다 성경적으로 재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사회복지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는 학술적인 측면에서 자신과 타자의 위상, 그리고 그에 따른 태도와 실천을 모색하고자 하는 타자 윤리학을 사회복지라는 현실 전문직에 응용한 연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타자 윤리학 연구를 첫째, 기존의 모더니즘 사상을 비판하면서 타자의 존재의미를 규명하는 연구, 둘째, 바람직한 타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양식을 탐구하는 연구, 그리고 셋째, 타자윤리학을 현실분야 특히 의료, 교육, 사회복지와 같은 현대 전문직 분야에 적용하는 연구로 구분할 때(김기덕, 2016) 본 연구는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기독교 사회복지사들 뿐 아니라 다양한 클라이언트와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고민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에게 구체적인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추후 이를 직접 사회복지 실천현장에 적용해 보는 과정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보다 풍부하고 심도 있는 논의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영안 (2005). **타인의 얼굴: 레비나스의 철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Kang, Y. A. (2005). *Face of the other: Levinas's ethics*. Seoul: Moonji Publishing Co.]
- 고성삼 역. (2010). **목적이 이끄는 삶**. Warren, R.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 [Ko, S. S. (2010). *The purpose driven life*. Seoul: Timothy Press. Trans. Warren, R. (2002). *The purpose driven life*.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 구미정 (2017).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탈북자-이웃을 환대하기. **현상과 인식**, 41(1/2), 30-51.
- [Koo, M. J. (2017). Where is the friend's home?: Being a neighbor with the North Korean refugees. *Phenomenon and Recognition*, 41(1/2), 30-51.]
- 김기덕 · 최소연 · 권자영 (2012).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과주: 양서원.
- [Kim, K. D., Choi, S. Y. & Kwon, J. Y. (2012). *Social Work Ethics and Philosophy*. Paju: Yangseowon.]
- 김기덕 (2016). **타자윤리**.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 동계워크숍 자료집.
- [Kim, K. D. (2016). *Ethics of the other*. Korean Academy of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 A collection of Winter workshop.]
- 김기덕 (2015). 대안적 비판이론으로서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67(4), 325-348.
- [Kim, K. D. (2015). A Study on implications of recognition paradigm for social work.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7(4), 325-348.]
- 김기덕 · 최명민 (2014). 바우만(Bauman)의 근대성 이론을 통한 한국사회복지실천의 유동성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6(4), 53-75.
- [Kim, K. D. & Choi, M. M. (2014). An Analysis of liquidity of social work practice in Korea through Bauman's theory of modernity.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6(4), 53-75.]
- 김연숙 (2001). **레비나스 타자 윤리학**. 서울: 인간사랑.
- [Kim, Y. S. (2001). *Levinas the Ethics of the Other*. Seoul: Ingansarang Press.]
- 김유동 역. (2001). **계몽의 변증법**. Adorno, T. and Korkheimer, M. (1947). *Dialectic of enlightenment*. 서울: 문학과 지성사.
- [Kim, Y. D. (2001). *Dialectic of enlightenment*. Seoul: Moonji Publishing Co. Trans. Adorno, T. and Korkheimer, M. (1947). *Dialectic of enlightenment*. London: Verso

Books.]

- 김응권 역. (2006). **타자로서 자기 자신**. Ricouer, P. (1995). *Soi-meme comme un autre*. 서울: 동문선.
- [Kim, E. K. (2006). *Soi-meme comme un autre*. Seoul: Dongmoonsun, Trans. Ricouer, P. (1995). *Soi-meme comme un autre*. Paris: Editions du Seuil.]
- 남수인 역. (2004). **환대에 대하여**. Derrida, J. (1997). *De L'hospitalite*. 서울: 동문선.
- [Nam, S. I. (2004). *De L'hospitalite*. Seoul: Dongmoonsun. Trans. Derrida, J. (1997). *De L'hospitalite*. Paris: Calmann-Levy.]
- 문성훈 역. (2011). **인정투쟁**.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고양: 사월의 책.
- [Moon, S. H. (2011). *Kampf um anerkennung*. Goyang: Aprilbooks. Trans.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Munich: Grin Publishing.]
- Harmonie (2018). 레비나스 시간과 타자(1): 그 안에서 엿볼 수 있는 그리스도 윤리. <https://blog.naver.com/sparkman7/220892704154>(검색일 2016.12.23.)
- [Harmonie. (2018). *Levinas's time and the other(1): A glimpse of Christ's ethics in it*.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sparkman7/220892704154>(2016.12.23.)]
- 박원빈. (2010). **레비나스와 기독교 : 기독교 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철학**. 서울 : 북코리아.
- [Park, W. B. (2010). *Levinas and Christianity : Modern philosophy in Christian theology*. Seoul : Book Korea.]
- 박희석 역. (2001). **조직신학 개론**. Berkhof, L. (1937).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Park, H. S. (2001).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Goyang: CH Books. Trans. Berkhof, L. (1937). *Manual of christian doctrine*. Michigan: Eerdmans.]
- 변종길 · 신득일 (2008). **성경 길라잡이**. 서울: 생명의 양식.
- [Byeon, J. G. & Shin, D. I. (2008). *A Guide to the Bible*. Seoul: The Bread of Life.]
- 서동욱 (2011). **차이와 타자**. 서울: 문학과 지성사.
- [Shu, D. W. (2011). *Difference and the other*. Seoul: Moonji Publishing Co.]
- 신인철 (2017). 신약성경 독자들을 위한 사마리아의 배경적 이해. <https://blog.naver.com/davidycho/220384742002>(검색일 2015.6.9.)
- [Shin, I. C. (2017). *Understanding Samarita's background for the readers of the New Testament*. Retrieved from <https://blog.naver.com/davidycho/220384742002>

(2015.6.9.)]

송재우 역. (2005). **관용에 대하여**. Walzer, M. (1997). On toleration. 진천군: 미토.
[Song, J. W. (2005). On toleratio. Jincheongun: Mito. Trans. Walzer, M. (1997). *On tolera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시시한 삶의 자리의 영광 (2018). 쉽게 읽는 철학_에마누엘 레비나스: 부조리와 실존을 넘어, 타자성의 윤리학. <http://gloriousruins0203.tistory.com/582>(검색일 2016.6.24.)
[The glory of a dull life. (2018). Philosophy of reading easily_Emanuel Levinas: Beyond absurdity and existence. Retrieved from <http://gloriousruins0203.tistory.com/582>(2016.6.24.)]

양명수 역. (2000). **윤리와 무한**. Levinas, E. (1982). *Ethics and Infinity*. 서울: 다산글방.
[Yang, M. S. (2000). Ethics and Infinity. Seoul: Dasangelbang. Trans. Levinas, E. (1982). *Ethique et infinity*. Paris: Fayard.]

양옥경 · 김정진 · 서미경 · 김미옥 · 김소희 (2010). **사회복지실천론**. 파주: 나남
[Yang, O. K., Kim, J. J., Suh, M. K., Kim, M. O. & Kim, S. H. (2010). *Social Work Practice*. Paju: Nanam.]

이경화 (2007). 성경적 맥락에서 살펴본 레비나스의 윤리학과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연구. **문학과 종교**, 12(2), 23-41.

[Lee, K. H. (2007). Reading Levinas's ethics in the biblical context and Levinasian reading of Twain's *The Adventures of Huckleberry Finn*. *Literature and Religion*, 12(2), 23-41.]

이문선 (2006). **그리스도의 새 생활**. 고양: 엔크리스토틀CUP.

[Lee, M. S. (2006). *A New Life of Christ*. Goyang: AnChristopher CUP.]

이일수 역. (2005). **액체근대**.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서울: 강.

[Lee, I. S. (2005). Liquid modernity. Seoul: Gang. Trans.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임순미 (2010). 다문화사회의 사회적 가치로서 '타자중심윤리-책임'의 적합성과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41-59.

[Lem, S. M. (2010). Suitability & implications of 'others-centered ethics-responsibility' as social value of multi-cultural society. *Journal of Korean Citizen Ethics*, 23(1), 41-59.]

정중규 (2012).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인관과 교회의 장애인사업에 관한 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Chung, J. K. (2012).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s about Jesus*

- Christ's Teachings and the Churches for Rehabilit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mong Rehabilitation Field Practitioners*. Doctoral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Daegu, Korea.]
- 최명민 (2011). **사회복지실천을 둘러싼 전문가-이용자 관계의 전근대적 측면과 대안적 실천의 모색**.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1-49.
- [Choi, M. M. (2011). *A study on the pre-modern aspects and alternative practices of the professional-user relationship in the field of social work*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A collection of Autumn Academic Conference, 21-49.]
- 최명민 · 권자영 · 김기덕 (2016). 정신보건영역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간이론의 탐색적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68(4), 225-246.
- [Choi, M. M., Kwon, J. Y. & Kim, K. D. (2016). An Exploration on the applicative potentials of the late modern social space to deinstitutionalization of the mental health fiel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8(4), 225-246.]
- 홍성태 역. (2014).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서울: 새물결.
- [Hong, S. T. (2014). *Risikogesellschaft*. Seoul: Newwave. Trans.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 홍지수 역. (2013).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Bauman, Z.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서울: 봄아필.
- [Hong, J. S. (2013). *The Individualized Society*. Seoul: Bomapil. Trans. Bauman, Z. (2001). *The Individualized Society*. Cambridge: Polity.]
- Coady, N. (1993). The worker-client relationship revisited. *Families in Society :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s*, 32, 291-298.
- Webb, S. A. (2006). *Social Work in a Risk Society :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논문초록

기독교적 타자윤리를 통한 사회복지실천관계 분석
: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중심으로

최명민 (백석대학교)

이현정 (교신저자/백석대학교)

서구에서부터 발달해온 사회복지실천은 초기부터 기독교 세계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그 지향과 실천적 지침을 형성해 왔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인 관계론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로서 타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기독교적 타자윤리 관점에서 재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 관련 문헌고찰과 분석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의 클라이언트로 지칭되는 우리 시대의 타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근대철학에서 이러한 타자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윤리적 입장들이 주장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여기서는 여러 타자윤리학자 중 기독교적 타자윤리학자로서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한 타자윤리가 주는 사회복지적 함의와 한계를 탐색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궁극의 대안으로서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실천을 타자윤리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실천적 지침을 도출한다. 이러한 연구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현장에 구체적 실천지침을 제시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관계에 대한 논의의 범위를 한층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타자윤리, 사회복지실천관계, 레비나스, 예수 그리스도, 사회적 약자

